

昭和60年度言語研修
朝鮮語テキスト3

朝鮮語読本

大江孝男編

東京外国語大学
アジア・アフリカ言語文化研究所
1985

朝鮮語讀本

(1985. 8. 28. 現在)

正誤表

頁	行	誤	正
1	8	장애를 받는 시가은	장애를 받는 시간은
1	16	반표했다	발표했다
2	2	김장 — 준순부터	김장 — 중순부터
2	8	기 압 끝이	기압 끝이
4	5	차분한다.	차분하다.
4	12	발표회	발표회
4	17	발표회	발표회
5	3	오색등	오색등
6	4	모난 시멘트	모난 시멘트
6	9	영락 었는	영락 없는
6	14	자른 듯 한	자른 듯한
8	1	몽고 지방의	몽고 지방의
8	16	시멘트로	시멘트로
8	19	뒤흔들어 놓는	뒤흔들어 놓는
9	11	광능 임업시험장	광릉 임업시험장
12	5	대학 사랑과	대학 사랑과

はじめに

この教材は、昭和60年度（1985）言語研修「朝鮮語」の副教材として準備したものである。

主教材が、日程に従って順次に会話練習を重ねて日常会話の基礎に習熟するよう編成されているのに対し、この副教材では、短い新聞記事を中心に民話2題を加えてその内容とし、講読を通じて文章表現になれることを目的に編集したものである。会話練習と並行して文章表現になじむことで学力の定着と向上をはかり、学習継続のための基礎を固めることを期待しているわけである。

漢字はすべてハングルに書き改め、理解しにくい用語についてのみ特にかっこで囲んで漢字を付記してある。

とりあげた新聞記事は、季節や暮らしの話題をあつかったものが主で、語学的な面よりも、内容を通して生活の背景やリズムを理解してもらうことを主眼に集めたものである。生活の背景となる事物は年数を経れば変わることがあり、生活のリズムに関する事物は季節との関係が深いので、いちいち日付けを附記してある。

講読の進度は、第2週第1日以降、毎日少くとも1節ずつという程度で、受講者の学力に応じて調整して考えてもらえばよいと考える。受講者の学力がやや高い場合のことを考えてやや多めに、民話2題を加えて編成してある。

新聞記事は、筆者が収集してきた新聞切り抜きの中から、韓国の人々の生活感覚に関係ある比較的短いものを選び出したものであるが、民話2題は、分りやすい内容のものをえらび、金裕鴻、石花賢両氏にお願いして初級向きにやややさしく書き改めてもらったものである。

印刷のための版下作成には、韓国語総合サービスの塚本亨氏に御苦勞をお願いした。

昭和60年7月

注 意 事 項

1. 講読の方針： 教材としてとりあげた記事は、ソウルを中心とする韓国の人々の生活感覚に関係するものに重点をおいて選んだもので、講読の目的は文章表現になれると同時に、生活感覚への理解をつくることにある。したがって、担当講師は、語学的な面だけでなく、記事の素材についても自分自身の知識や体験をまじえて解説を加え、受講者の理解を助けるよう努力してほしい。

今回の教材は1970年代の記事が中心となっているので、その後様子の変わったものも多いであろう。当時「中央観象台」であったものを現在は「中央気象台」といっているようであり、「潜水橋」は工事が進んで全く面目を一新している。このような変り方を話してやるのも生活の背景の理解のためには大きく役立つものと思う。

2. 講読の進度： 発音と文字の学習が一通り終った段階である第2週から、1日あたり1節程度のスピードで講読を進めてほしいが、研修がやや進んだ段階では状況によって進度を速めてもよい。

語学的には、文章表現になれることが第1の目的であるから、最初はゆっくり丁寧に解説するよう希望する。その後の講読については、進度についても教材学習の順序についても特にこだわらず、状況によって判断してほしい。受講生の要望によっては、講読の順序を変えて指導することも考えてよい。要は、主教材と並行して、すこしずつでも毎日講読することである。

第 1 部 新聞記事にみる話題

(1)	3월 4, 5일 태양 흑점 방해	1
(2)	새해 1월 1일에 윤초	1
(3)	보름 빨리 솟은 “봄 즐기”	2
(4)	봄이 꽃 피는 4월	2
(5)	김장 — 중순부터 월말까지 적기	3
(6)	밤이 가장 긴 — 오늘 “동지”	3
(7)	오늘 성탄 전야	4
(8)	오늘 한국 고유 무술 택견 발표회	4
(9)	나팔꽃 모양 “수중 분수”	5
(10)	즐거운 꽃길	6
(11)	한여름 날씨 — 어제 대구 30도	7
(12)	오늘 중부 내륙 영하 19도	7
(13)	지하철 불시 정거 등 사고 원인은 “취”	8
(14)	창경원 춘당지 8년 만에 새 물로 갈아	9
(15)	철거될 수인선 협궤철도 제주 — 만장굴 관광열차로	10
(16)	통통배가 쫓치 그물로 고래 잡아	10
(17)	창경원 꽃사슴 새 “식구” 넷	11
(18)	오늘 하지 — 단오절	11
(19)	서독 본에 첫 한국인 학교	12
(20)	딸 네쌍둥이 분만	13
(21)	오늘 “3·1절” 58돌 - 6일 경칩	14
(22)	영상 맞아 “지가 입학식”	14
(23)	전국에 감질나는 가랑비, 본격 장마 7월 초순께나	15
(24)	무더위 — 장마의 달 ... 7월	15
(25)	“신종 허수아비” ... 참새 쫓는 새매	16
(26)	다수성 고추 신품종 육성	16
(27)	“장기 한파” 난동으로 후퇴	17
(28)	고개 숙인 추위 — 감기 환자 늘어	18
(29)	요긴한 돈 소매치기 당해	19
(30)	모내기 개막	20

(31)	세검정 옛 모습을 재현	21
(32)	구정을 민족 명절로	22
(33)	장마 전국에 - 중부 호우	23
(34)	귀성 차표 매진	24
(35)	“산허리 뱃길” 160리	25

第 2 部 民 話 2 題

(1)	거울	27
(2)	삼년 고개	30

第 1 部

新聞記事にみる話題

(1)

3월 4, 5일 태양 흑점 방해
—한국등 12개 지역 국제 통화 장애—

체신부는 26일 우리 나라와 미국 홍콩등 12개 지역간의 위성 국제 통신이 태양 흑점의 항해로 오는 3월 4일부터 5일 동안 하루 한 차례씩 장애를 받을 것이라고 밝히고 해당 시간에는 이들 지역간의 국제 전신 전화를 되도록 피해 줄 것을 요망했다.

미국 위성 통신 공사가 체신부에 통보해 온 내용에 따르면 장애를 받는 시가는 오전 9시 11분 - 13분부터 5분 - 8분간이며 12개 지역은 미국 홍콩 중국 서독 필리핀 하와이 방콕 괌 캐나다 호주 이탈리아 싱가포르 등인데 이 같은 국제 통신 장애는 해마다 두 번씩 일어나는 현상이다. ("조선일보", 1977. 2. 27. 일.)

(2)

새해 1월 1일에 윤초
— 오전 8시 59분 61초를 9시로 —

국립 천문대는 23일 우리 나라의 표준시를 77년 1월 1일 오전 9시를 기해 1초를 늦춘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77년 1월 1일 오전 8시 59분 60초 다음에 1초를 더하여 8시 59분 61초를 9시 0분 0초가 되도록 조정하게 된다. 이와 같이 조정하는 것은 국제 천문 연맹 (IAU) 과 국제 무선 통신 자문 위원회 (IRCC) 의 결의에 의해 77년 1월 1일 0시 (세계 표준시) 를 기해 윤초를 실시 한다는 국제 시보국 (BIH) 의 통보에 따른 것이다.

("조선일보", 1977. 12. 24. 금.)

(3)

보름 빨리 솟은 “봄 줄기”

— 서울 시청 앞 분수 어제 가동 —

16일 오전 11시 서울 시청 앞 분수가 높이 12m의 물줄기를 시원스럽게 뿜어올려 시민의 눈길을 끌었다. 분수의 가동은 예년보다 보름이 빠른 것. 예년에 없던 강추위와 겨울 가뭄을 털고 봄 맛이 환경 정리 작업을 시작한 것이라고 서울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시내의 나머지 12개 분수는 4월 1일부터 가동된다.

(“조선일보”, 1977. 3. 17. 목.)

(4)

봄이 꽃 피는 4월

4월은 남녘에서 올라 오는 화신과 함께 봄이 활짝 열리는 달. 진달래 개나리 벚꽃등의 갖가지 꽃 잔치 속에 행락 인파가 대자연을 누비고 농촌에서는 한층 일손이 바빠진다. 보온 못자리를 만들어 가꾸고 보리 밭 이랑의 흙을 북 돌아 주는 등.

중앙관상대는 초순에는 맑고 흐린 날이 엇갈리면서 강한 꽃샘 바람이 주기적으로 일겠으나 중순에는 대체로 맑고 온화한 날씨가 되겠다고 예보했다.

비는 하순에나 예상되며 이 때를 전후하여 다시 번덕 날씨가 계속되다가 정상을 되찾을 것 같다고.

(“조선일보”, 1977. 4. 1. 금.)

(5)

김장 — 중순부터 월말까지 적기 —

본격적인 월동 채비를 해야 되는 11월. 김장, 난방 준비, 겨울을 나기 위한 문틈 손질 등으로 주부의 주름살이 늘고 일손이 연중 제일 바빠지는 달이기도 하다.

김장은 이 달 중순부터 추위가 시작되는 소설(22일)쯤까지가 알맞을 것 같다고 관상대는 밝혔다.

관상대는 상순은 주기적으로 약간의 비가 내리고 맑아지는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이다 중순은 기온도 온화하고 맑은 날씨가 되겠으며, 하순에는 깊은 기압 골이 지나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져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겠다고 내다봤다.

(“조선일보”, 1976. 11. 2. 화.)

(6)

밤이 가장 긴 — 오늘 “동지”

오늘(22일)은 동지. 태양이 남회귀선(남위 23도 30분)까지 내려가 북반구에서는 밤이 가장 길어진다는 날이다.

12월 들어 절후에 걸맞지 않게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연말까지도 큰 추위는 없을 것 같다는 중앙관상대의 예보.

관상대는 22일에도 전국이 영상의 날씨이겠고 성탄 전날인 24일에는 오전 중 기압골의 통과로 약간의 눈 또는 비가 내리겠다고 내다봤다.

관상대는 요즘의 포근한 날씨는 이례적으로 저기압이 자주 발생돼 우리 나라 남쪽과 중국 상해 지방에서 형성된 고기압의 따뜻한 공기가 우리 나라로 확장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 1976. 12. 22. 수.)

(7)

오늘 성탄 전야 — 화이트 크리스마스 될지도 —

조용한 가운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다. 24일은 크리스마스 이브, 그러나 서울 거리는 요란함이 없다. 사람이 다소 붐비는 큰 백화점들과 일부 상가에만 산타클로스의 모습, 크리스마스 트리 등 장식이 있을 뿐, 장안은 큰 들뜸없이 차분하다. 중앙 관상대는 23일 중국 내륙에 자리잡은 기압골이 우리 나라로 옮겨와 24일 오후부터 눈 또는 비가 오겠다고 예보, 잘하면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지도 모르겠다. 기온은 23일보다 2도 정도 낮아 서울과 중부 지방 아침 최저 영하 3도, 낮 최고 영상 7도, 남부 내륙 지역 최저 0도, 최고 8-10도가 될 것이라고.

(“조선일보”, 1976. 12. 24. 금.)

(8)

오늘 한국 고유 무술 택견 발표회

우리 나라 고유의 무술인 택견 발표회가 9일 오후 2시 서울 중앙 YMCA 체육관에서 거행된다.

택견의 몸놀림은 고구려 고분 벽화와 신라 사천왕상 등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그 연원을 꼭 잡을 수는 없지만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우리의 스포츠 전통 문화다.

이 번 발표회에서 택견의 마지막 생존자라 할 수 있는 송덕기 김홍식 양씨에게서 사사 받은 신증씨가 8명의 문하생에게 가르친 “온화한 가운데 큰 힘을 내는 조상들의 술기”가 펼쳐진다.

발표회는 송, 김, 신씨의 시연, 문하생들의 기본 동작(25개), 맞서기(겨루기), 태권도와 기술, 몸짓 비교 등으로 이어진다. (“조선일보”, 1977. 4. 9. 토.)

(9)

나팔꽃 모양 “수중 분수”

— 반포 잠수교 하류 ... 오색동 설치 —

서울에 이색적인 수중 분수가 생겼다. 반포 잠수교 하류 25 m 지점 한강 수중에서 나팔꽃 모양으로 물줄기를 뿜어 올리는 이 분수대는 강물에 떠 있는 것으로, 깊이 4 m 아래의 땅 속에 두 개의 닻으로 고정 돼 있다.

물줄기의 높이는 3 m, 뿜어 올려졌던 물이 떨어지는 반경은 20 m에 달하는데 물 속에 빨간 색과 파란색의 수중등 8개가 있어, 어두워진 뒤에는 물줄기가 태극 모양의 색깔을 띠게 된다.

서울시는 첫번째 수중 분수에 이어 시민의 반응이 좋으면 잠수교 상하류에 4개씩을 만들 예정인데, 물줄기의 높이도 두 배쯤 높이는 방법을 시험 중이다.

떠 있는 분수대 무게는 폭기통(曝氣桶), 부조(浮槽), 닻등 5백 26.5 kg. 잠수교 복단 제방에서 6백 V의 고압선을 끌어 동력으로 쓴다.

(“조선일보”, 1977. 4. 22. 금.)

(10)

즐거운 꽃길...

...무교로에 통나무형 화분

무교로에 통나무 모양의 화분이 등장, 모난 시멘트 구조물만 봐 오던 시민의 눈길을 즐겁게 해 주고 있다.

통나무형 화분은 높이 1 m, 지름 70 cm의 원통형과 같은 높이의 상자형, 두 가지인데 펜지, 데이지 등 봄 꽃을 가득 담고 있다. 서울시는 23일까지 무교로 양쪽 인도에 모두 1백 80개의 통나무형 화분을 설치할 예정.

그러나 이 화분은 걸보기엔 영락 없는 통나무지만, 실상은 특수 공법으로 만든 시멘트 제품인데, H농원이 최근 의장 등록을 마쳤다. 값은 개당 2만원꼴.

서울시 녹지국은 무교로에 통나무 화분을 시범 설치한데 이어, 시내 전역의 녹지대 경계석을 연차적으로 모두 통나무 모양의 것으로 바꿀 예정인데, 서울 서부역 앞 청파로 도로 공원의 경계석은 길이 1 m, 폭 20 cm, 높이 35 cm의 통나무를 길이로 자른 듯 한 모양의 것으로 바꾸었다.

(“조선일보”, 1977. 4. 21. 목.)

(11)

한여름 날씨 ... 어제 대구 30도

한여름 같은 날씨가 닷새째 계속되고 있다. 지난 8일부터 예년보다 4-5도나 높은 25-27도의 더위로 사무실, 다방 등에는 냉방 장치가 벌써 등장했고, 거리에는 반소매 차림이 많이 눈에 띈다.

12일은 대구가 30도로 가장 높았고, 추풍령 29도, 대전 광주 전주가 28도, 춘천 청주 목포가 27도, 서울은 26.4도였다.

중앙관상대는 동서에 걸친 발달한 고기압대가 우리 나라를 느리게 통과, 높은 기온이 오래 계속되는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나 13일부터는 고기압 후면을 따라 접근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예년 기온이 되겠고, 호남 일부와 제주 지방에는 약간의 비가 예상된다고 예보했다. ("조선일보", 1977. 5. 13. 금.)

(12)

오늘 중부 내륙 영하 19도

— 반세기만의 혹한 “당분간 계속” —

반세기만의 한파였다. 20여일간 계속된 이상 난은 끝에 성탄절인 25일 밤부터 급강하한 전국의 기온은 28일 새벽 중부 내륙 지방이 영하 19도 (서울은 영하 16도) 까지 내려갔으며 이에 앞서 27일 새벽 서울지방이 영하 18.5도까지 떨어져 12월 기온으로는 1927년 12월 31일 (영하 23.1도) 이래 최저 기온을 나타냈고 적근산등 전망 고지는 영하 31도를 기록했다. 강추위와 함께 전북 고창 울릉 제주 목포 지방에는 적설량 32.7cm - 11cm의 폭설이 내려 육로와 함께 비행기 및 정기 여객선의 발이 묶였다.

중앙관상대는 이번 추위가 몽고 지방의 한랭한 고기압 세력 확장 때문이라고 밝히고 28일부터는 차차 풀리겠으나 예년 기온보다는 낮겠으며, 이 같은 날씨는 며칠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추위가 닥치자 농촌진흥청은 농가에 농작물 동해 예방을, 내무부는 화재 예방을 당부했다. (“조선일보” , 1976. 12. 28. 화.)

(13)

지하철 불시 정거 등 사고 원인은 “ 쥐 ”

지하철이 쥐 때문에 위협을 받고 있다. 서울시 지하철 본부는 75년 11월 27일 제 152 전동차가 종각역에서, 지난 4월 4일 제 512 전동차가 종로 3가역에서 까닭없이 정거했던 사고와, 지난 1월 12일 지하철의 6천 6백볼트 짜리 고압 배전선이 갑자기 끊긴 사고의 원인이 쥐 때문인 것으로 최근 밝혀냈다.

이는 자동 열차 제어 장치에 연결된 전선이나 고압 배전선의 PVC 껍질을 쥐가 갉아먹어 전기 합선을 일으켰기 때문인데, 현장 부근에서 감전돼 죽은 쥐가 발견됨으로써 확인된 것.

이에 따라 지하철 본부는 지난 연말과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1천개의 쥐 밥을 놓았고, 전선이 들어 있는 관입구를 시멘트로 메우거나 곳곳에 밤송이 20가마를 깔아놓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4월 세 번째 사고가 일어나자 초진장, 쥐가 싫어 하는 특유한 냄새가 나는 약제를 일본에서 구입하여 시험 사용하고 있으며, 쥐의 신경을 퇴혼들어 놓는 초단파 발생 장치를 설치할 것도 고려 중이라고.

(“조선일보” , 1977. 5. 14. 토.)

(14)

창경원 춘당지 8년만에 새 물로 갈아
— 금잉어등 나오고 쓰레기도 두 트럭 분

창경원 춘당지가 8년만에 물 갈이를 했다.

지난 69년 환수된 춘당지는 밑에서 자연수가 솟지 않는데다, 그동안 관람객들이 버린 쓰레기등으로 크게 오염, 물고기가 많이 죽어가고 있어 창경원측은 깨끗한 자연수로 갈기 위해 물을 빼냈다.

30일 오전 11시에 시작된 물빼기 작업은 20시간만인 31일 오전 9시쯤 끝났는데 길이 60cm의 금잉어등 물고기 5백여 마리와 강통, 빈 병등 2트럭 분의 쓰레기가 나왔다.

창경원측은 물고기를 광능 입업시험장 연못에 임시로 풀었다가 춘당지 바닥을 소독 및 청소하고 자연수로 다시 채운 후 이곳에 방류키로 했다.

(“조선일보”, 1977. 6. 1. 수.)

(15)

철거될 수인선 협궤철도 제주 - 만장굴 관광열차로

제주도서 요청

제주도는 수원-인천간을 운행하고 있는 협궤 열차를 제주도에 옮겨 관광열차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4일 교통부에 건의했다.

도는 이 협궤를 제주시에 옮길 경우 제주시와 만장굴 사이 26km 구간에 부설할 계획을 세우고, 열차의 수송과 철도 용지 매입등 시설 자금을 지원해 주도록 요구했다 (제주 장승홍기자) (“조선일보”, 1977. 6. 5. 일.)

(16)

통통배가 콩치 그물로 3 t 고래 잡아

속초 동방 20 마일 해역에 콩치 잡이 나갔던 20 t 짜리 소형 통통배 홍양호 (선장 최운봉, 45) 가 15일 오전 6시쯤 그물에 걸려 든 3 t 무게의 고래를 사로잡아 속초항에 양륙했다.

길이 5 m, 가슴 둘레 2.5 m인 이 고래는 콩치떼를 쫓아 다니다가 그물에 말려 들었는데, 선장 최씨등 7명의 선원들은 샷대에 칼을 동여매 찌르는등 3시간 동안 승강이를 벌인 끝에 고래가 실신하자 꼬리에 밧줄을 매달아 끌고 왔다는것.

속초항에 고래가 잡혀 온 것은 처음이어서 부두는 구경꾼들로 덮이기도 했는데, 이 고래는 이날로 1백만원에 포항으로 팔려갔다. ((속초))

(“조선일보”-색연필-, 1977. 6. 17. 금.)

(17)

창경원 꽃사슴 새 “식구” 넷

창경원 꽃사슴이 3일 동안 넷이나 불었다. 지난 15일에 두마리의 귀여운 새끼가 태어났고, 16, 17 일에도 각각 한 마리씩 순산, 28마리의 대식구가 된 것. 태어나면서부터 울안을 뛰어 다니며 새 세상을 익히기에 바쁜 아기 사슴들을 해칠까 봐 사람들이 얼씬만 해도 아빠 엄마 사슴은 마구 투정을 부려 18일 현재 사육사들이 울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조선일보”, 1977. 6. 19. 일.)

(18)

오늘 하지 — 단오절

21일은 단오절이자 1년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하지. 서울시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운동장에서 “시민 단오 잔치”를 갖고 각구 대항 씨름, 그네, 줄다리기등 민속놀이를 벌인다.

이날 낮의 길이는 14시간 45분, 밤은 9시간 14분으로, 동지에 비하면 낮의 길이가 5시간 13분 가량이나 더 긴 셈.

중앙관상대는 전국적으로 구름이 끼겠으나 비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기온은 중부지방이 최고 29도, 남부지방은 23도 - 25도 평년보다 1도 - 2도 높은 분포를 보이겠다고 예보했다. (“조선일보”, 1977. 6. 21. 화.)

(19)

서독 본에 첫 한국인 학교

— 토요일 3시간 ... 어머니 교실도

서독의 수도 “본”에 한국인 학교(교장 구기성)가 생겼다. 2세들에게 조국에 대한 사랑과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해 우선 매주 토요일 오후를 이용, 초급반과 고급반으로 나누어 한글 국사 음악을 가르치고 있다.

구교장이 이 사실을 22일 편지로 본사에 알려왔는데 “본”의 시당국과 교포 독자의 후원으로 지난 5월 7일 “본”시 바드 고테스베르그에서 문을 열고 42명의 신입생을 모집, 토요일마다 3시간씩 수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포들은 학교 후원회를 조직 명예고문에 이창희 현지 대사, 후원회장에 김성은의 학박사, 이사에 이심준 최동열 안병준씨를 선출했다.

김회장이 2천마르크(41만원), 학부모 일동이 1천마르크를 내고, 문교부에서 8백마르크, 김택하의원이 2백달러 방완식씨가 2백마르크를 각각 성금으로 내놓았다. 이 학교는 자녀들이 수업을 받고 있는 시간을 이용, 어머니들에 독일어와 꽃꽂이를 강습하고 4-5세의 유치반에서는 간단한 노래와 무용을 가르치고 있다. 가급적 많은 학생들에 조국을 가르치기 위해 교재를 무료로 주고 휴계시간에는 음료도 무료 제공하고 있다. 아버지가 수학 연수관계로 체류하여 고정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자녀 1명에 한해서만 수업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

(“조선일보”, 1977. 6. 23. 목.)

딸 네 쌍동이 분만

…산모는 실신

강원도 정선군 북면 구절 1리 최병구씨 (37, 구절 우체국 임시 집배원)의 부인 손순자씨 (34)가 12일 새벽 2시쯤 자택에서 딸 네 쌍둥이를 출산했다.

네 여아의 건강은 아직까지 이상이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산모는 출산 직후 실신이 날 밤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최씨 부부는 두살과 세살짜리 연년생 딸 둘과 다섯살 된 외아들이 있었으나 아들을 지난 6일 병으로 잃어 이번 출산으로 딸만 여섯을 두게 됐다.

산모는 가난으로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조산원도 없이 남편의 도움으로 네쌍둥이를 출산했는데, 산모가 실신한 것은 아들을 잃은 후 충격으로 제대로 먹지를 못해 영양실조에 걸린 때문이라는 것.

산모와 아기들을 검진한 북면 보건소 공의 이경수씨 (48)는 “네쌍둥이의 체중이 신생아의 평균체중보다 절반 가량 밖에 되지 않는데도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은 놀라울 정도”라고 말하고, 산모는 큰 병원에 입원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하며 네 아기의 건강도 정밀 검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을 들은 박종성 강원도 지사와 박수균 정선군수는 최씨 부부에게 각각 금일 봉책을 전했으며, 정선군은 산모와 아기들의 건강을 위해 이날 오후 이들을 사북면 동원보건원에 입원시켰다. ((황지))

(“조선일보”, 1977. 5. 13. 금)

(21)

오늘 “3·1절” 58 돌-6일 경칩 … 예년보다 날씨가 따뜻한 듯

1일은 58주년 3·1절. 서울에서는 오전 10시 시미회관에서 삼부 요인과 독립 유공자 및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갖고 종로 네거리 보신각종을 33번 친다.

이 날을 시작으로 열리는 3월은 6일의 경칩(驚蟄), 21일의 춘분을 지나면서 본격적인 봄을 불러온다.

각급학교의 새 학년이 시작되고 봄 농사로 농촌의 일손도 바빠진다. 중앙관상대는 3·1절 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차츰 흐려지겠으며 낮 최고 기온은 13-17도까지 올라가겠다고 밝히고 3월의 날씨는 산동반도 저기압의 영향으로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많겠다고 예보했다. (“조선일보”, - 3월 메모 -, 1977. 3. 1. 화)

(22)

영상 맞아 “지각 입학식” … 올해 취학아 100만명

늦추위로 미뤄졌던 국민학교의 입학식이 7일 오후 학교별로 거행됐다. 올해 전국의 취학 아동수는 1백여만명. 서울은 17만 2천 1백 53명으로 작년보다 4천여명이 줄었다. 기승을 부리던 늦추위가 물러가 평년보다 5-6도나 높은 따뜻한 봄날씨 속에 학부모의 손을 잡고 등교한 어린이들은 반편성을 끝내고 담임 교사 및 새 친구들과 첫 인사를 나눴다.

중앙관상대는 “추위가 갑자기 풀린 것은 남해안의 따뜻한 고기압 때문”이라고 밝히고 “8일에는 전국 최저 기온이 모두 영상으로 올라 앞으로는 큰 추위 없이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겠다”고 예보했다. (“조선일보”, 1977. 3. 8. 화.)

(23)

전국에 감질나는 가랑비, 본격 장마 7월 초순께나

가뭄 끝에 29일 오전 전국적으로 비가 내렸으나, 강우량이 극히 적은 감질나는 비였다.

서울지방은 오전 11시쯤 한때 가랑비가 뿌렸으나, 강우량은 0.5mm에 그쳤고, 제주도만은 제주 52.4mm, 서귀포 27.3mm로 비다운 비가 왔다. 그밖에 청주 30.8mm, 강릉 7.2mm, 추풍령 2.2mm, 광주 2mm정도가 내렸을 뿐 다른 곳은 빗방울이 떨어지다 말았다.

중앙관상대는 제주도 남쪽에 동서로 걸쳐 있는 강우 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흐리고 비가 뿌렸다고 밝히고, 본격적인 장마는 7월 초순(3일-5일)부터 시작되겠다고 예보했다. ("조선일보", 1977. 6. 30. 목.)

(24)

무더위 — 장마의 달 ... 7월

삼복 더위에 장마가 걸드는 7월. 피약벌 아래 농촌 들녘에서는 김매기 일손이 바빠지고 탐스럽게 익어가는 청포도와 함께 싱싱한 과일, 푸성귀가 여름의 미각을 돋구는 달이다. 20일을 전후하여 초, 중, 고교가 방학에 들어가고 직장인도 모처럼의 휴가를 얻어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계절이기도 하다.

중앙관상대는 남해안에 있는 장마전선이 북상, 중부지방은 이달 상순부터 장마권에 접어들겠으며, 중순에는 곳에 따라 한 두 차례 호우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이미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고 있는 남부지방은 중순경에, 중부지방은 하순초에 각각 장마가 걷히고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으나 소나기가 자주 내려 잠깐씩 무더위를 씻어 주겠다고. ("조선일보", 1977. 1. 1. 금.)

(25)

“신종 허수아비” … 참새 쫓는 새매

경기도 양주군 미금면 지금리 361 함선학씨(37)는 25일 경희대 조류연구소(소장 원병오 학사)의 도움을 얻어 참새를 쫓는 모양 새매를 개발.

합씨는 새매가 참새의 천적인 점에 착안, 몸통과 날개는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그 위에 형광으로 깃털을 붙여 새매가 날개를 활짝 펴고 나는 모습의 모형을 눈에 띄워 놓은 결과, 참새가 기겁을 하고 달아나는등 허수아비보다 훨씬 큰 효과를 나타냈다는 것.

모형새 설치는 논이나 밭 위 4-5m에 나무 막대기로 고정시켜 놓거나 나일론 실로 묶어 도르래를 달아 움직이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이동형이 효과가 더 커 1마리가 1천-3천평, 고정형은 5백-1천평을 지킬 수 있다고.

(“조선일보” -색연필-, 1977. 6. 26. 일.)

(26)

다수성 고추 신품종 육성

… 원교 302호, 내년부터 보급

((수원)) 논촌 진흥청은 7일 다수성 숙과용(김장용) 고추인 신품종 “원교 302호” 육성에 성공, 내년부터 전국 농가에 보급키로 했다.

이 고추는 재래종 고추보다 68% 증수되고, 파종이 쉽고 재배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이다.

올해 지방 적응 시험을 마친 결과 수량성은 재래 “시판종”이 10a당 8백 55kg

인데 비해 “원교 302호”는 1천 4백 35 kg을 생산하고, 마른 고추 수량도 시판종은 10 a당 1백 87 kg인데 “원교 302호”는 2백 87 kg이나 됐다.

이 품종은 69년 미국 품종인 프레스노칠(Fresnochile)을 도입, 70년부터 73년까지 모체 품종에 웅성불수인자(雄性不穗因子)를 고정하여 74년 생산력 검정 시험 결과 우수 품종으로 인정돼 3년동안 지방 연락 시험을 했다.

(“조선일보” , 1976. 9. 8. 수.)

(27)

“장기 한파” 난동으로 후퇴

— 어제 평년보다 4-5도 높아

13일째 계속되던 “장기 한파”가 크게 누그러져 서울, 중부지방은 7일 오전 최저 기온이 평년보다 4-5도가 높은 영하 3-5도의 포근한 날씨를 보였다.

이 날 서울의 최저기온은 6일보다 8.2도가 높은 영하 3.8도로 평년보다 5.9도가 높았고, 인천 영하 1.7도, 춘천 영하 5도등 중부지방도 수은주가 크게 올랐다.

그러나 남부지방은 진주 영하 10.2도, 대구 영하 9.3도, 울산 영하 7.8도로, 계속 추운 날씨를 보였다.

중앙관상대는 중부지방의 기온이 누그러진 것은 대륙성 고기압 세력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지면서 힘이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이 같은 날씨가 당분간 계속돼 주말인 8,9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에 전국 평균 최저 기온이 영하 5-7도, 최고 3-6도의 평년 기온이 되겠다고 예보했다.

(“조선일보” , 1977. 1. 8. 토.)

고개 숙인 추위 — 감기 환자 늘어

추위가 누그러치면서 감기 환자가 늘어났다.

서울 시내 각 종합 병원, 약국등에는 날씨가 풀린 지난 6일부터 평상시보다 2-3배 많은 감기 환자가 찾아오고 있는데 증세는 어른의 경우, 고열에 목이 붓고 콧물이 나오며 어린이는 기침이 심한 것이 특징이다.

한양대 부속병원 내과 이정희 박사(44)는 “요즘의 감기 환자”증가는 심한 기온차이와 대기의 건조 때문이며 유행성 감기는 아닌 것 같다”고 밝히고 “감기가 악화되면 기관지염, 폐렴, 편도선염등을 병발시키므로 초기에 치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립 의료원 내과 과장 이학중 박사(44)는 감기 예방 요령으로 ◎실내 공기를 탁하지 않도록 자주 환기할 것 ◎급습기를 사용하거나, 빨래를 널어 실내가 건조하지 않도록 할 것 ◎외출시 마스크를 착용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피할 것 ◎양치질을 자주 할 것 등을 권하고 감기에 걸렸을 때는 과로를 피하면서 증세에 따른 대응요법을 쓰도록 당부했다.

예년보다 2-3도 높은 기온이 며칠 계속되자 개울을 덮었던 얼음이 녹았다. 아낙네들은 물가를 찾아 밀린 빨래가 한창인데 기온의 급격한 변화로 감기 환자가 늘어 또 범석이다.

“10일 판교에서”

(“조선일보”, 1977. 1. 11. 화.)

(29)

요긴한 돈 소매치기 당해

— 단속 철저로 잡힌다는 불문을 심어야 —

김 기 양 (서울 중구 황학동)

며칠전에 동대문에서 미아리로 가는 버스를 탔다가 3만 4천원을 소매치기 당했다. 그 수법이 얼마나 능숙한지 집에 와서 안주머니 면도질한 곳을 보고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버스를 타고 다니는 일반 서민의 돈이 모두 요긴하게 쓰일 곳이 있는 만큼 돈을 잃었을 때의 당황함과 안타까움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문제는 이들 소매치기들이 한두번의 범행에서 그치지 않고 잡히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 짓을 한다는데 있다. 오늘도 급히 쓸 돈을 가지고 다니다가 소매치기를 당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을 것이다.

당국은 철저한 소매치기 단속을 하여 안타까와 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여 주기를 바란다. 꾸준한 단속을 해서 소매치기들에게 언젠가는 꼭 잡힌다는 불문을 남겨야 할 것이다. (“조선일보” - 민성 - 호소 , 1977. 7. 5. 화.)

(30)

모내기 개막

여름 문턱 ... 어제 “소만”

본격적인 여름의 문턱이라는 소만(21일)을 넘기고 맞은 이번 주말은 전국적으로 최고 기온이 23 - 25도의 더운 날씨가 예상된다.

중앙관상대는 남부지방에 위치했던 저기압이 물러나고 서쪽에 중심을 둔 고기압이 접근해 22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일요일인 23일은 오후에 구름이 약간 끼겠으나 등산이나 낚시, 주말 여행에는 알맞은 날씨가 되겠다고 예보했다. 모내기 작업도 21일 전국적으로 시작됐는데 농수산부는 통일벼의 경우 1모작 지대는 이날부터 6월 5일까지, 2모작 지대는 6월 10일부터 25일까지 심도록 하고 일반벼는 1모작인 경우 대전 이북은 이날부터 6월 5일까지, 대전 이남은 6월 10일부터 25일까지, 2모작은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모내기를 끝내도록 요망했다.

(“조선일보”, 1976. 5. 22. 금.)

(31)

세검정 옛모습을 재현
— 36년만에 ... 자연석 위에 복원 —

세검정이 불탄지 36년만에 옛모습대로 다시 지어졌다. 서울시는 일제 때인 41년 인접한 종이 공장의 화재로 타 없어졌던 세검정을 2천 6백 46만원의 예산으로 복원, 6일 준공했다.

정(丁)자형 팔작(八作)지붕을 한 정자는 6평, 주변 넷가는 자연석으로 석축을 했고, 살구나무, 매화나무 등 우리 나라 고유수종 3백여 그루를 심어 단장했다.

시는 인근 세검정 국민학교와 자매 결연하여 세검정의 관리를 맡겼다.

세검정의 이름은 인조 반정 때 이귀, 김유 등이 광해군의 폐위를 이곳에서 의론하고, 성공한 후 칼을 씻어 칼집에 넣었다는 고사에서 유래되었다. 숙정 때 북한산성을 축성하는 지휘소로 세웠던 정자라고도 하며, 영조 24년(1748년)에 창건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조선일보", 1977. 5. 7. 토)

구정을 민족 명절로

— 신정에 고유 풍속 느낄 수 없어 —

이 두현 (충남 천안시 구성동)

앞으로 며칠 안 있어 신정이다.

그러나 어떤 일인지 우리가 말하는 소위 설날이라는 명절로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설날(구정)은 먼 옛날부터 우리 민족의 중요한 명절로 계승해 왔다. 조상의 은혜에 심적으로 감사드리고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을 다시 깨우치는 설날의 풍습은 메말라만 가는 현세대에 어느 만큼 각성제가 될 행사일 것이다.

이 같은 우리의 고유 명절을 굳이 양력 1월 1일로 바꿔, 신정을 지내도록 주장하는 것은 어딘지 잘 못 된 것이 아닐까.

우리의 미풍양속인 구정을 그 날 지내게 양성화하여 2중과세의 낭비를 막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만나 뜻 깊게 하루를 즐기도록 해 주었으면 한다.

순수한 우리 민족 고유의 설날을 지내고 싶은 것은 나 혼자만의 소망은 아니리라 본다.

(“조선 일보” — ∞민성 ... 나의 의견∞ —, 1976. 12. 29. 수.)

장마 전국에 — 중부 호우

… 축대등 붕괴 10명 부상

… 원주 백 40 mm … 전국이 본격적인 장마권에 접어들면서 3일밤부터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천둥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4일 오후 6시 현재 강수량은 원주 140 mm를 최고로, 서울 122.8 mm, 수원 101.9 mm의 순위였고, 춘천 지방은 30 mm 이상이 내렸다. 이번 비로 중부이북 지방은 완전 해갈됐으나 서울 및 강원도 지방에서는 수해가 나 10여명이 부상하고 가옥 침수 4백 92동, 축대 붕괴 5개소, 교량 파괴 5개소등의 피해를 냈다.

… 7일부터 큰 비 … 20일까지 … 중앙관상대는 그동안 남해안에 걸쳐 있던 강우전선이 북상을 계속, 3일 오후부터 전국이 장마권에 들어갔다고 밝히고, 이번 장마는 20일까지 계속 흐리고 비 오는 날이 많겠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장마전선이 현재 다소 위축되고 저기압이 동해로 빠질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중부 지방은 4일 오후 늦게부터 차차 개겠고, 영, 호남 지역은 5일과 6일 계속 비가 오겠으며, 중부 지방은 대체로 흐리다가 7일부터 다시 큰 비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비의 천둥 현상은 저기압의 전선이 중부 지역을 지나면서 심한 상승기류가 생겨 일어났다고 관상대는 설명했다. 이번 비는 추풍령을 경계로 이남 지역은 거의 내리지 않았다. (“조선일보”, 1977. 7. 5. 화.)

귀성 차표 매진

신정 연휴를 앞두고 30일 서울을 출발하는 기차는 특급의 경우 2일까지의 표가 모두 팔렸고 고속버스도 1일분은 거의 매진, 증배차를 서두르고 있다.

철도청은 세모 귀성객을 위해 서울역발 열차를 77개로 늘렸으나 많은 귀성객들이 표를 사지 못해 고속버스 터미널로 발길을 돌렸다.

서울역 당국은 작년보다 승객이 20%쯤 늘어 30일 하루에 5만여명이 서울역을 떠났다고 밝혔다.

동대문 고속버스 터미널에는 30일 새벽 4시부터 귀성객이 모여 하룻동안 호남선은 31일 표가 90%, 1일표가 70% 예약됐고 경부선은 60% 영동선은 50%가 팔렸다.

터미널측은 31일에는 더 많이 몰릴 것으로 보고 60여대의 예비차를 동원, 1일 5백회 배차를 5백 60회로 늘려 2만 6천여명을 수송토록 했다. 한편 신년 연휴의 날씨를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 같다. 중앙관상대는 1월 1일은 대체로 맑겠으나 중부 호남 동서 해안지방은 곳에 따라 약간의 눈이 내리겠으며 기온은 최저 영하 7-8도, 낮 기온은 0도 가량의 분포가 되겠고 2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에 영하 8도-0도의 평년 기온, 3일은 구름이 많고 곳에 따라 약간의 눈이 내리겠다고 내다봤다.

(“조선일보”, 1976. 12. 31. 금.)

“산허리 뱃길” 160 리

— 해발 200 m … 관광선 다녀, 10월부터 카페리호 취항 —

춘천 - 양구 - 인제 - 내설악을 잇는 1백 60리의 뱃길이 트여 새 관광지로 등장했다.

29억 t의 물을 높이 1백 23 m의 돌과 모래, 찰흙으로 막은 소양강 다목적 댐이 건설됨에 따라 해발 2백여 m의 험준한 산허리를 쾌속 관광선을 타고 유람할 수 있게 됐고, 담수 예산면적 70평방 km 중 현재 39평방 km가 물 속에 잠겨 강원도의 지형이 또 한번 바뀌어진 셈이다.

새로 트인 뱃길은 국내 최초의 내륙 운하. 쾌속 관광선을 타고 댐 하류에서 인제쪽으로 거슬러 오르면 하루 아침에 달라진 주변의 산과 들이 한 눈에 들어온다.

관광철인 요즘 소양댐엔 1만여 관광객이 몰려 정원 54명(설악호), 1백명(동부호)인 쾌속 관광선은 계속 초만원인데 댐과 양구에서 하루 각각 9회씩 왕복운항하고 있다. 요금은 일반 4백 50원, 군경 학생이 3백 20원. 소양호에는 설악 1, 2호 외에도 동부 관광에서 35 t급 관광선 2척을 진수시켜 양구까지 1시간에 갈 수 있다. 오는 10월에는 이 새 명소에 2백 t급 카페리호(승선 인원 2백명, 버스 2대, 승용차 10대 적재) 2척을 진수시켜 동해 고속도로 - 설악산 - 소양댐을 잇는 태백 중령이 1일 관광권이 된다고. (춘천 = 임호영 기자)

(“조선일보” , 1977. 5. 24. 화.)

第 2 部

民 話 2 題

(1)

거 울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담배 농사를 짓는 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 농부가 담배를 팔러 서울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는, 시골 산골에서는 몇 번 죽었다가 살아나도 볼 수 없는 별에 별것이 다 있는 곳입니다. 서울에는 중의 상투나, 고양이 뿔도 있다는 거짓말이 정말같이 들린 만큼, 없는 것이 없는 곳입니다.

서울은 머나 먼 길, 담배 장수는 새벽 밥을 지어 먹고 집을 나서는데, 따라 나온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서울 갔다가 돌아 올 때는 내 빔을 하나 사다 주세요”

“암, 사다 주고 말고, 도대체 빔이란 건 어떻게 생겨 먹은 거지?”

이런 말을 주고 받고 있을 때, 마침 새벽 하늘에는 하얀 초생달이 떠 있었습니다. 아내는 울타리 너머 새벽 하늘의 초생달을 가리키면서,

“빔이란 건 저기 저 하늘의 초생달처럼 생긴 거래요”

“염려 말아요. 내가 잊지 않고 사 오지”

“당신은 까마귀 알을 먹었는지, 하도 잘 까먹으니 걱정이예요. 달만 쳐다보고 사 오세요”

서울에서, 담배 장수는 한 짐 지고 온 담배를 다 팔았습니다. 이 번에는 시골에 가지고 갈 것을 시장에 가서 샀습니다.

옷감, 갓, 망건 같은 것을 사고나서, 아내가 사 오라고 당부한 것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사 오라고 당부하던 일만은 생각이 나나, 그 물건 이름이 무엇인지 도무지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러나 간신히 하늘의 달을 아내가 가리키던 일이 머리에 떠 올랐습니다.

담배 장수는 하늘을 쳐다 보았습니다. 담배 장수가 시골에서 떠나 온지도 열흘이나 되었습니다. 그 새 초생달은 둥근 달이 되어 하늘에 걸려 있었습니다.

담배 장수는 가게 주인을 보고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여자들이 쓰는 것으로 달걀처럼 둥근 것을 하나 주시오”

가게 주인은 머리를 갸웃하고 생각하더니, “아, 이 건가 보군” 하면서 둥근 거울 하나를 쥐어 주었습니다.

담배 장수는 아내가 사 달라고 당부하던 것이 바로 이렇게 생긴 것이구나 생각하면서 거울을 손에 들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아주 힘이 세어 보이는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음, 이 녀석을 데리고 가면 밭일도 부려 먹을 수 있겠군”

담배 장수는 마음이 흡족해 하면서 에누리도 하지 않고 그 거울을 사 가지고 시골로 돌아 왔습니다.

시골에 돌아 온 담배 장수는 보따리를 끄르자 아내에게 거울을 주었습니다.

아내는 빗인 줄만 알고 받아보니까 둥그런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둥그런 거울 안에는 어여쁜 젊은 여자가 눈을 뚱그랗게 뜨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 여자가 누굴까?”

아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남편이 서울 색시를 새로 아내로 삼아 가지고 데리고 온 것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두 불이 잔뜩 부어 가지고 핵 돌아 앉아 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썩어하고 화가 난 며느리를 보고,

“애야, 아가야, 넌 무슨 하찮은 일로 꼴을 내고 있니? 신랑이 서울 천리 먼 길을 갔다 왔는데” 하고 며느리를 달래려고 하니,

“어머님, 이 것 좀 보세요. 원 글썽, 부탁한 빗은 사 오지 않고 젊은 서울 색시를 차고 왔으니”

하면서 그 둥그런 것을 시어머니한테 보여 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신기한 눈으로 며느리가 주는 둥그런 것을 받아 보니까, 그 안에는 호호 백발의 할머니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젊은 여자가 어디 있니? 골골하는 다 늙은 할머니가 있는데, 죽을 날도 그리 멀지 않아. 그냥 내버려 뒤편도 곧 죽을 전데 그만 마음을 돌려라.”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말다툼이 붙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그게 어디 다 늙어 빠진 할머니냐고 하고, 시어머니는 그게 어디 젊은 여자냐고 욕신 각신 하다가 싸우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왁자지껄하는 바람에 시아버지가 와서 무슨 영문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서 가지고 온 그 둥근 것을 내보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둥근 것을 받아서 들여다 보니까, 그 속에는 머느리가 앵앵거리고 말하는 젊은 색시도, 시어머니가 쿵쿨거리고 말하는 다 늙어 빠진 할머니도 없었습니다.

“젊은 색시가 어디 있고, 늙어 빠진 할머니가 어디 있어”

하고 말하다가 시아버지는 주춤했습니다.

“아니, 이 게 누구냐?” 시아버지는 벼락같이 소리 쳤습니다.

“이 늙은이가 인사도 없이 머느리와 시어머니만 있는 안방까지 함부로 들어 왔을까? 썩 나가지 못 할까?”

둥그런 것을 놓고 세 사람이 본 것은 제각기 달랐습니다. 머느리는 젊은 색시, 시어머니는 늙은 할머니, 시아버지는 늙은 할아버지. 세 사람은 자기가 본것이 진짜라고 핏대를 세우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나 훤히 아는 원님한테 가서 가려 보기로 했습니다.

“원님, 원님. 이 둥근 것 속의 사람을 우리 세 사람은 다 달리 말하는데, 원님께서 가려 주십시오”

원님은 의관을 고치고 수염을 한 번 쓰다듬고는 둥근 것을 받아서 신기한 눈으로 들여다 보았습니다.

둥근 것을 들여다 보는 원님의 두 눈은 점점 커지더니, 부들 부들 떨리는 목소리로,

“서울서 새 사또님이 내려 왔구나. 나는 그만 이 자리를 내놓아야 하겠군” 하고, 그날로 원님 자리를 그만 두었다고 합니다.

(2)

삼년 고개

옛날 어느 시골에 미신을 잘 믿는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장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 오는 길에, 삼년 고개라는 고개에서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삼년 고개에서 한 번 넘어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3년 밖에는 더 살지 못 한다는 전설이 전하여 내려 오는 그런 고개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넘어진 채 주저앉아 있다가, 허둥 지둥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은 마치 죽은 사람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할머니와 아들이 보고 걱정이 돼서 묻자, 할아버지는 크게 한숨부터 내 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구, 이 일을 어쩌면 종단 말이나? 이제 오래 살긴 글렀어. 내가 오늘 장에서 집으로 돌아 오다 그만 그 삼년 고개에서 넘어졌단 말야. 그 놈의 고개에서 넘어졌으니 나는 이제 삼년밖에 더 못 산단 말야”

할아버지는 이 말을 간신히 마치자, 엉엉 소리를 내어 울기까지 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할머니와 아들도 함께 따라 울었습니다. 그들도 할아버지가 그 삼년 고개에서 넘어졌으니, 이제 삼년밖에 더 살지 못 한다는 사실이 몹시 서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삼년 고개의 내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로해 드릴 말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리 하여 할아버지는 매일 매일을 근심과 울음으로 보냈습니다. 이런 날이 계속될수록 할아버지의 몸은 점점 쇠약해져서 나중에는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가족들은 그냥 옆에서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의원을 부른다, 약을 쓴다 하여, 정성껏 할아버지를 간호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와 아들의 정성 어린 간호도 아랑곳없이, 할아버지의 병은 점점 더해 갈 뿐, 아무 효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이 병으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지나 않을까 하고 그 것만을 걱정했습니다.

이렇게 온 집안이 슬픔에 젖어 있을 때였습니다. 그 소문을 전해 듣고, 이웃에 사는 한 소년이 찾아 왔습니다.

이 소년은 할아버지가 누워 있는 방으로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공손히 인사를 드

린 다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과히 염려하지 마세요. 삼년 고개에서 넘어지셨으면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건 없어요”

“아니, 배가 날 놀리는 건 아니지?”

“아이 할아버지도, 참. 제가 왜 할아버지를 놀려요?”

“그럼, 내가 삼년 되어도 죽지 않을 좋은 방법이라도 있단 말이나? 아니다. 그건 어림도 없는 말이다. 암, 안 되고 말고”

“할아버지, 액을 때우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조금도 걱정하지 마세요”

할아버지는 이 말을 듣자, 귀가 번쩍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두 눈은 금방 생기로 빛났습니다.

“뭐? 액을 때우는 좋은 수가 있다고?”

“예, 할아버지, 그렇다니깐요”

“오냐 알았다. 그럼 그 좋은 수란 도대체 어떤 수냐? 어서 말을 해라”

“그건 할아버지,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할아버지는 그 무서운 액을 때울 수 있어요. 아니 액만 때우는 것이 아니라, 더 오래 오래 사실 수도 있는 방법이에요.

할아버지, 그 삼년 고개로 가셔서 한 번만 더 넘어지세요”

“너, 이 놈. 어린 녀석이 고약하게도 어른을 놀리다니? 그 고개에서 한 번만 더 넘어지라구? 아 글썄, 한 번 넘어져도 삼년밖에 못 산다는데, 지금 다시 한 번 더 넘어지면 난 그 자리에서 당장 죽고 만다. 고약 놈. 이 할아버지를 어서 죽으라고 하는 게냐?”

할아버지는 화가 잔뜩 나서, 베고 있던 목침으로 그 소년을 때리려고 하였습니다.

“할아버지, 잠깐만 참으시고 제 말을 마저 들어 보세요, 네? 삼년 고개에서 한 번 넘어지면 삼년은 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두 번 넘어지면 육년은 더 살 수 있고, 세 번 넘어지면 구년, 네 번 넘어지면 십이 년... 할아버지, 이런 좋은 방법이 또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말한 소년은 또 말을 이었습니다.

“삼년 고개에 가셔서 힘 닿으시는 데까지 자꾸 자꾸 넘어지세요. 그러면 넘어지신 수의 세 배는 문제 없이 더 살 수 있는 고개가 바로 삼년 고개라는 뜻이에요. 할아버지, 아시겠어요?”

“응, 네 이야기 듣고 보니, 정말 그럴 듯한 얘기로구나. 아, 내가 미쳐 그 걸 몰랐구나. 네 말이 맞았다, 맞았어”

할아버지는 금방 노여움을 풀고, 소년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렇다니깐요. 제가 아까 걱정하실 것 없다고 했잖아요”

“응, 그 걸 그렇게 생각하지는 못 하고, 그저 삼년밖에 못 산다고만 걱정했구나. 내 지금 당장 삼년 고개로 가서 넘어지겠다. 아니, 데굴 데굴 굴러 보겠다”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할아버지는 기운을 내어 그 삼년 고개로 달려 갔습니다. 그리고 고개 맨 꼭대기에서부터 데굴 데굴 굴렀습니다.

“하느님, 제가 구르는 수의 삼 배만큼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할아버지는 신나게 굴렀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의 말이 끝나자마자, 이상한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어리석은 늙은이 같으니라구. 그래, 이 이치도 모르고 뽕뽕 얹기만 했어? 십팔만 년이나 살았다고 하는 저 삼천 갑자 동방 삭이란 사람도 옛날 이 고개에서 육 만 번이나 굴렀단다”

이 말을 한 사람은 다름 아닌 그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어린 소년은 할아버지 몰래 삼년 고개의 나무 그늘에 숨어서 할아버지의 말대답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동방 삭이가 이 고개에서 육 만 번이나 굴렀다구요?”

할아버지는 신이 났습니다. 흥얼 흥얼 콧노래를 부르며, 자꾸 자꾸 굴렀습니다.

이리 하여 정신을 되찾은 할아버지는, 삼년이 무엇입니까, 오래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